

“우리 지역 대표 브랜드 ‘반딧불이’ 지켜주세요”

광주 남구 대촌천 반딧불이 보존회

2014·2015년 개체 발견 후 결성
현재 회원 48명...매일 환경 정화
서식지 탐방 행사·개체 수 연구도
“관광상품 개발로 관심 제고 필요”



광주 남구 대촌천 반딧불이 보존회 회원들은 지난 21일 반딧불이 생태 보존을 위한 회의를 마치고 남구 원산동 포충사 인근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서형우 기자



“세계적으로 반딧불이 개체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촌 일대에선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촌천 반딧불이를 지키기 위해선 생태 보전과 함께 친환경 관광 상품으로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광주 남구 원산동 포충사에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 약 20명의 ‘대촌천 반딧불이 보존회’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포충사 입구 버스 정류장부터 제봉교 앞까지 대촌천 일대 약 500m를 돌며 수풀 사이사이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다.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의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캔은 부피를 줄여 별도 수거했

다. 약 1시간 후 70L짜리 종량제 봉투로만 10여개가 꽉 채워졌다.

대촌천 반딧불이 보존회는 이 같은 환경 정화 활동을 월 1회꼴로 실시하고 있다.

반딧불이 자체의 성장은 물론이고 성체 전 유충이 주로 먹는 달팽이의 서식에도 쓰레기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존회는 2014년 덕남도랑에서 처음으로 늦반딧불이 성충 6개체가 발견된 데 이어 이듬해 대촌천에서도 반딧불이가 포착되자 이들의 생태

를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 2015년 4월 결성됐다.

현재 보존회에는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등 48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환경 정화 활동 외에도 반딧불이 서식지를 직접 관찰·탐방하는 생태 체험을 지난해까지 9회에 걸쳐 진행해 왔다.

남구와 함께 반딧불이 생태 연구에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반딧불이 개체 수를 직접 파악하는 중인데, 덕남도랑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세에 있다는 게 보존회의 분석이다.

연도별 측정 횟수는 조금씩 달랐으나, 대촌천

과 덕남도랑의 1회당 평균 발견 개체 수는 ▲2023년 69.6마리·19.5마리 ▲2024년 58.7마리·41마리 ▲2025년 79.8마리·70.9마리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보존회는 환경 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반딧불이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한다.

박병옥 대촌천 반딧불이 보존회장은 “개체 수가 늘어난 건 생태 보전 노력의 결과”라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빛 공해에 취약하고 습지와 깨끗한 물이 있어야 사는 반딧불이의 특성상 개발이 늘고 환경 오염이 심해질수록 살아갈 땅을 잃게 된다”며 “지속적인 보존 노력과 함께 친환경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 확대로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보존회의 활동에 남구는 2023년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를 신설했고,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인 ‘광주의 생활’에서는 반딧불이를 남구의 지역 브랜드로 소개하고 있다.

관목할 성과지만,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환경 정화 활동에 앞서 오전 9시30분께 진행된 ‘반딧불이야 함께 살자’ 간담회에서 회원

들은 ▲서식지 확대 및 관리 ▲반딧불이 관련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동영상 촬영 홍보·교육 프로그램 확대·각종 행사 연계 등을 남구에 요구했다.

박미숙 남구 탄소중립과장은 “예산 확보와 홍보 확대를 위해 의회 등과 협의해 보겠다”며 “남구만의 관광 상품 개발과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다. 앞으로도 보존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광주 ‘대리수술’ 물의 병원, ‘개설 취소’ 행정처분 불복

최근 市 행정위에 ‘처분 취소’ 등 신청
집행 정지 인용...늦어도 6월 초 결론

광주 서구로부터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이 이에 불복,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22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동 소재 A 병원은 이달 초께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신청했다.

A 병원은 의사들이 수술을 해선 안 되는 간 호조무사에 비해 불합 처치를 맡기는 등 ‘대리 수술’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

이 외에도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수가를 받아 챙겼는데, 이 같은 행위로 A 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구는 불법을 저지른 의료진들이 현재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자문 내용을 근거로 청문회를 진행했고 지난달 27일 A 병원 측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일은 오는 6월1일이다.

그러나 A 병원 측은 서구의 이 같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 병원 측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집행 정지

도 요청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오는 6월1일로 예정됐던 A 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분안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보된다.

현행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서구는 최근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A 병원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연상 기자

“이관” 항철위 조사 단원 새로 구성돼야”

제주항공 유가족협, 국조실에 촉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국무조정실을 향해 ‘항철위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새롭게 구성됐지만,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단원들은 모두 교체 없이 그대로 이관됐다”며 “이는 노숙 농성과 사발을 하며 항철위

의 독립을 호소했던 유가족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만 바뀌어 항철위의 이관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목과할 수 없다”며 “우리는 희생자의 마지막 유해 한 조각까지 가족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재영 기자

‘직권남용’ 이정선 시교육감 재판 조만간 본격화

재판부, 최근 공판준비명령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위임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용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 측에 지난 13일 공판 준비 명령을 내렸다.

공판 준비 명령은 재판부가 정식 공판기일 전 사실 또는 증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 각자의 입장을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절차다.

이후 재판부는 곧바로 정식 재판을 열거나 공판 준비 기일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에 있는 사항이라 어느 절차가 진행될지 단언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까지 공판 준비 또는 재판 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판 준비 명령이 원활한 심리를 위한 절차인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이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A 전 국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기소됐고 아직까지 공판 또는 준비 절차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안재영 기자

목포 숙박업소 불...50대 투숙객 숨겨

목포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50대 투숙객이 숨졌다.

2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53분께 목포시 호남동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30분여만인 오전 4시28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투숙객 A(50대)씨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외에도 투숙객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화기 부족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